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46) (8/5/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4 장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 3-4 절

레 19:1-2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막 1:15 -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3. 당신의 죄들이 아니면, 지옥의 불이 무엇을 연료로 삼아서 영원토록 활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소욕을 더 많이 따를수록, 나중에 내세에서 받게 될 괴로움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지옥 불을 타오르게 할 연료는 그 만큼 더 많이 제공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신이 저지른 바로 그 구체적인 죄에 걸맞은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불붙은 막대기에 쫓겨서 정신없이 내달리게 될 것이고, 먹기를 탐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은, 불붙은 역청과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유황으로 뒤범벅이 된 불 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고,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미친 개들처럼 구슬피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4. 모든 최악은 각각의 최악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자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 없어서 지독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탐욕스럽게 살았던 자들은 지독한 가난과 궁핍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시간 고통 받는 것은, 여기에서 백 년 동안 가슴을 찢고 통절하게 참회하고 뉘우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힘들고 괴롭더라도 중간 중간 쉴 수 있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쉼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꼼꼼히 살피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심판의 날에 저 복된 사람들과 함께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서 사람들의 판단에 복종하였던 의인들이 그 날에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하였던 자들을 쳐서 일어나 견고히 서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큰 담대함을 갖게 되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사방에서 엄습해 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지옥 불은 우리의 죄에 비례하여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지옥 불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준비하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 없고 잔인하게 징벌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된다. 주님은 최악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심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지옥 심판의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 속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신다. (2)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레 19:1-2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당할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라는 말씀이다. 죄는 하나님에 반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으로 인한 고귀함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성경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의 원래의 고귀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죄의 결과로서 심판과 지옥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함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18 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의 목회자요 신학자이자 제 1 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때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1741년 7월 8일, Enfield, CT)이라는 명설교를 남겼다. 이 설교문은 에드워즈의 저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 설교는 일종의 ‘부흥설교(Revival sermon)’ 혹은 ‘죄인설교(Sinners’ serm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설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지옥의 공포에 대한 묘사이다. 에드워즈는 성경을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죄인들이 당하게 될 지옥 형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묘사하고 선포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에드워즈는 단순히 지옥 자체를 강조하며 겁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목적은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었다. 에드워즈는 지옥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회심을 촉구한 것이다. 죄악된 인간이 멸망당할 존재임을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고귀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에드워즈의 죄인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의 회심과 회복이었다.

아캠퍼스가 성경에 근거하여 지옥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도 우리의 돌이킴과 정결함이며,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신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다양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깨어지고, 고치고, 버리고, 씻어내야 한다. 지옥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옥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가까이 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지옥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회개하고 거듭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2.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은총, 강같은 기쁨의 역사가 계속 되게 하옵소서.
3. 환난의 때에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 가정, 기업이 소생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

421(210)(내가 예수 믿고서)